

칼럼

장기채 주필



꽃길 따라 걸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 죽은 땅에서 라이락을 피우고 / 추여과 욕망을 뒤 쉬고 / 봄비로 무던 뿌리를 뒤 흔들며 / 겨웁은 우리를 포근하게 했지 / 땅각의 눈 속에 대지를 감싸며 / 미른 가지에 어린 생명을 기르면서...

엘리트의 '황무지' 중에서 파운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4월을 일컬어 잔인한 달이라고 한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그저 그렇게, 익숙한 어감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 봄에 큰일이 터졌다. 애먼 꽃을 닮았다. 매화꽃 느긋하게 즐김 겨울은 아예 없었다. 다투어 퍼버리거나 늦을세라 배꽃과 복사꽃마저 뒤죽박죽 피어나는 사태를 맞았으니, 싸매고 누구는 봄의 무례함을 나무라며 사대질을 한다.

이제 꽃벌비 나는 난리가 아니고 뭐겠는가. 30만 그루의 벚꽃 향연이 펼쳐진다. 1.5km의 벚꽃길이 장관이다.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벚꽃축제 1번지 경남 창원 진해 군항제다.

또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서면 화구리까지 이어지는 동천 30리 벚꽃길에서도 활짝핀 꽃구경 상춘객들의 탄성이 이어진다.

하지만 바람이 벚꽃을 타는지 벚꽃이 바람그네를 타는지 벗어나 숲이 파도처럼 출렁거린다. 비에 피었으니 이제 바람에 하르르 지는 일반 남은 봄꽃들, 여찌 꽃을 잊을 수 있을까.

천지에 봄바람이 분다. 사방에 봄 향기 그윽하다. 봄이 한창이라 온갖 꽃이 만발하다. 그중에서도 벚꽃축제는 봄 축제의 대명사다.

진해군항제, 여의도 벚꽃축제에는 해마다 수십만 수백만명이 다녀간다.

연분홍 진달래가 그림자대 대구 달성군 비슬산(1084m)이나 인천 강화군 고리산(436m)을 찾아보자.

'한사람이 꽃길을 걸어온다면 그도 꽃이 아니겠느냐' 윤홍조 시인의 '꽃길'은 어느 봄날 꽃길 나들이에 나선 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연상하게 한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을

맛이 매화, 산수유,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저마다 화려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꽃향기를 따라 여행을 떠나는 상춘객들도 늘어난다. 사랑하는 이들과 나서는 꽃길 나들이는 대부분 부담이 없어 좋다.

또 봄에 제주도를 찾았다면 청보리의 장관을 맞는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찾으면 파란 보리 물결이 해변에 일렁이는 장관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보리밭 면적만 60만㎡에 달한다.

제주도를 찾았다면 가파도에 이어 우도로 건너가 보자. 유채꽃만 잔치와 우도소리축제가 한창일 것이다. 해너복을 입고 직접 해산물 채취하는 우도 해녀체험도 좋다.

수영이 부담스럽다면 천진항 주변의 해안에서 소리잡기 체험을 하면 된다. 인심 좋게 모두 무료란다.

전통을 주제로 한 축제도 있다. 전통어촌민속문화축제인 광안리

어방축제는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에 설치됐던 전통 민속놀이인 좌수영어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수영아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등 무형문화재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다.

어쨌든 온 천지에 봄기운이 한창이라 온갖 꽃이 만발하다. 마치 봄은 꽃을 위해 있는 듯하다. 철따라 꽃이 피건만 따스한 봄기운을 받으며 만개한 봄꽃은 유난히 아름답고 애착이 간다.

언 땅 밑에서 오래 동안 움츠러 들었던 생명이 다시 소생하면서 '살아있다'는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어 더욱 그런 것 같다.

봄꽃은 번잡한 일상에서의 여유와 낭만을 준다. '봄이 오자 성안에 꽃이 만발하여 화려하고, 따스한 봄날에 만물은 바야흐로 한창기를 펴고 자라나다. 때가 좋구나 친구들이 산천경치를 구경 가세' 조선조 후기의 평민 잡가(雜歌)인 유산가(遊山歌)는 이렇게 봄을 노래했다.

화창한 봄날에 역시 꽃놀이가 제격이다. 꽃바람 꽃향기 속에서 마음까지 꽃물이 드는 게 봄꽃놀이라고 하는데 때마침 27년 전통을 자랑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일원에서 오는 27일 화려하게 막을 올려 꽃대결을 이룬다.

꽃밭을 거닐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꽃들의 개성도 생각한다. 속절없이 피고 지는 꽃이건만 이래서 더욱 애정이 느껴진다. 꽃은 또 사랑과 안정과 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社說

생활물가 잡아야 한다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시작된 외식 서비스 가격 인상에 하반기에는 공공서비스 가격 역시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등 유통채널별 가격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도 엄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백화점의 경우 소비경기에 가장 민감하다. 물가 인상에 따라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의 소비 포기나 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백화점 핵심 고객 층인 최고 소득층의 소비 변화는 없었지만 중산층의 소비는 백화점보다는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 채널로 이동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에 백화점은 내국인 소비보다는 가격 민감도가 낮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해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이다. 외식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가정 식 수요를 확대해 대형마트의 식품부문의 수요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가 수요 증가를 영입이익으로 이어지는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편의점 역시 1~2인 가구의 식품 수요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물가인상에도 수요는 견조해 보인다. 하지만 물가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적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가의 상승은 서민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靡 侍 己 長

靡 侍 己 長

쓰러질 미, 믿을 시, 몸 기, 길 장

▷ 뜻 : 자신(自身)의 특기(特技)를 믿고 자랑하지 말아야 함. 그러므로써 더욱 발달(發達)함.

기고

남훈석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봄철 산행은 이렇게 준비하자

전국 국토의 68%가 산인 우리나라는 등산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며 꽃이 만개한 봄철인 지금이 등산하기 좋은 최고의 시기이다.

하지만 등산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발생률은 가을철보다 높은데 이러한 사고를 조금이나 줄이고자 안전한 산행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당일 날씨 확인과 자기관리 상태이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며 등산 계획을 미루고, 몸이 조금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날 산행은 삼가게 좋다.

두 번째는 준비물이다.

무리하게 짐을 준비하는 건 좋지 않으나 꼭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등산가방, 스틱, 등산화, 보온통, 바람막이, 모자, 간식)은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온에 신경쓰자.

봄철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추운날씨로 혈관이 수축되고 압력이 높아져 심장마비가 생길 확률

이 높다.

그러므로 겹겹이 옷을 입거나 산행 시 젖은 양말을 갈아 신는 등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네 번째는 준비운동이다.

산행 전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체온을 일정 온도 올려주는 것이 좋으며, 중간중간 쉬어가며 산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산물조심이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물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화기도구는 가

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둔다.

산행사고의 70%는 하산 중에 발생하므로 하산 시 등산화 끈을 한번 체크 및 가능한 스틱을 사용하고 빨리 걷는 것 보다 짧은 보폭으로 일정속도를 유지하는게 좋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 핸드폰 배터리는 완충하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는 이동하기보다는 한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등산로 설치되어 있는 신약위치표지판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사고는 발생은 방심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조급한 주위에 신경쓰고 준비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리라 자신한다.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대표전화: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광고국: (062) 222-5544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대한민국인행복 advertisement with images of people and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